

한라시론



김 양 훈
프리랜서 작가

제주4·3과 대동청년단

제주의 오월은 아름답다. 바람 부는 날, 출렁이는 보리밭 푸른 물결을 제대로 표현할라치면 베토벤의 전원교향곡 말고 또 있을까! 그러나 1948년 제주의 봄은 슬프게도 피바람의 시작이었다. 김달삼 무장대 사령관과 김익렬 제9연대장이 어렵사리 맺은 4·28평화협상이 사흘만인 5월 1일 깨져 버렸기 때문이다. 대동청년단이 저지른 '오라리 방화사건'은 평화협상을 방해하기 위한 파괴공작이었는데, 미군정의 작전명은 '메이데이'였다. 김익렬 연대장은 방화 주동자인 오라리 연미마을 출신 대동청년단원 박 아무

개를 검거해 9연대 영창에 집어넣었다. 그는 김익렬 연대장이 해임된 후 신임 박진경 연대장에 의해 풀려나 경찰관이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장병들의 불만을 샀고, 박진경 대령이 부하들에게 암살되는 도화선이 됐다. 제주의 대동청년단과 서북청년단은 제주4·3 초기 토벌대의 일원으로 활동한 대표적인 우익단체였다. 대동청년단은 제주 토박이 우익청년 조직인 반면, 서북청년단은 영락교회 청년부 중심의 이북출신만으로 조직된 극우반공 단체였다. 서북청년단이 저지른 열기적 만행은 증언이 많은 데 비해 토착 단체인 대동청년단의 활약상에 대해서는 조사와 연구가 미약한 편이다. 해방공간의 제주에는 광복청년회와 독립축성청년연맹 지부가 있었다. 이 두 우익단체가 대동청년단 제주지부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계급도 아니 싸움으로 심한 갈등을 빚었다. 이

갈등은 미군정 방첩대가 개입해 김익렬을 단장으로 하는 조직으로 통합했다. 대동청년단 제주조직은 읍면 단위 각 지역으로 확산이 되었고, 4·3이 발발하면서 단원들은 경찰지서에서 철야근무를 하는 등 '경찰보조단체'로 활약하게 된다. 지난 4월 총선 기간, 여당 후보자 부친의 대동청년단 표의면 총책 이력이 논란거리가 되었다. 이 논란은 대동청년단의 토벌활동을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었지만, 선거가 끝나고 다시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어느 후보 쪽이든 증거 자료가 부족했다. 김익렬 연대장은 생전에 남긴 실록 유고에서 제주4·3의 자료가 미비하고 부정확한 이유를 세 가지 들었다. 첫째, 사료를 정확히 기록해야 할 관리들이 4·3사건의 발생원인과 진상이 사실 그대로 보도되면 자신들의 과오나 죄상이 역사에 영원히 남을까 두려워한 것. 둘째, 당시의 사건책임자들이

이후 정부의 고관 또는 정치적 지도자로서 상당한 기간 세력을 가졌던 것. 셋째, 제주 지식인들이 무능하고 무기력해서 진상을 세세히 알면서도 후환이 두려워서 보신을 위해 덮어둔 것. 4·3 발발에서부터 반세기 넘게 침묵의 강요와 자료의 파괴, 그리고 사실 왜곡이 이어졌다. 시간은 진실의 적이다. 늦었지만 제주4·3 과정에서 대동청년단이 벌인 토벌활동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 진실을 위한 추적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공평한 응보를 위한 정의로운 시민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정의는 그것을 구하고 기억하는 자만이 누릴 자격이 있다. 인간의 과거 평판으로 역사적 사실을 덮을 수는 없다. 한나 아렌트의 유명한 '악의 평범성'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아렌트는 국가 명령에 순응하는 모범적 시민도 역사 속 악행을 저지른다고 주장했다.

사설

이태원發 파장... 방문자 반드시 신고를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감염 여파가 제주지역까지 일파만 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이태원 지역을 다녀온 도민이 당초 40명에서 12일 105명으로 늘었고, 13일엔 총 1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상을 넘는 의외의 수치입니다. 이미 이태원지역을 방문한 도민 1명이 확진을 받고 접촉자 140명이 자가격리된 상태에 발 여파가 논현동지역까지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지역 방문도민수도 더 늘 것으로 예상돼 방역당국을 초긴장케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12일 이태원 방문 이력으로 65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진행, 음성판정을 받는데 이어 13일 추가 11명도 검사결과 음성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불행중 다행'의 결과입니다. 13일 현재까지 파악된 이태원클럽 방문 도민 116명중 1명의 확진자를 제외한

은 음성판정 상태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이태원발 코로나19 감염여파가 서울 논현동 소재 클럽까지 확대되면서 해당 업소를 찾은 도민들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무증상을 보이거나 갑자기 상황이 바뀔 수 있고, 자가격리중인 도민도 있습니다. 도는 최근 이태원·논현동 등 수도권 확진자 방문업소를 찾은 도민들을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신신당부하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추가 확진 가능성 때문입니다. 결국 해당지역 방문도민들이 추가로 있다면 이웃의 안위를 생각해 반드시 자발적으로 신속한 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그간 도민 모두의 고생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만일 신속히 신고·검사받지 않아 무차별 다수 도민의 2차 피해가 발생한다면 당사자들은 무한대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렌터카 교통사고, 이대로 놔둬선 안된다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를 연령별로 보면 눈에 띄는 나이가 있습니다. 바로 20대입니다. 감염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2일 0시 기준 발표한 누적 확진자(1만936명) 중 20대가 3029명입니다. 전체의 27.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0대가 1963명(17.95%), 40대 1448명(13.24%)입니다. 공교롭게도 제주도내 렌터카 교통사고의 절반 가량이 20대 운전자로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2017~2019년) 도내에서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총 1641건입니다. 이 기간 도내 전체 교통사고의 13%에 이르고 있습니다. 렌터카 교통사고 중 20대 운전자 사고는 43%(703건)로 집계됐습니다. 그 뒤를 이어 30대 23%(373건), 40대 15%(250건), 50대 12%(191건), 60대 이상 5%(85건)입니다. 연령이 낮을수록 렌터카 교통사고 비중이 매우

컸습니다. 특히 20대 운전자의 렌터카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20대입니다. 2017년에는 전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2일 0시 기준 발표한 누적 확진자(1만936명) 중 20대가 3029명입니다. 전체의 27.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0대가 1963명(17.95%), 40대 1448명(13.24%)입니다. 공교롭게도 제주도내 렌터카 교통사고의 절반 가량이 20대 운전자로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2017~2019년) 도내에서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총 1641건입니다. 이 기간 도내 전체 교통사고의 13%에 이르고 있습니다. 렌터카 교통사고 중 20대 운전자 사고는 43%(703건)로 집계됐습니다. 그 뒤를 이어 30대 23%(373건), 40대 15%(250건), 50대 12%(191건), 60대 이상 5%(85건)입니다. 연령이 낮을수록 렌터카 교통사고 비중이 매우 컸습니다. 특히 20대 운전자의 렌터카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20대입니다. 2017년에는 전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2일 0시 기준 발표한 누적 확진자(1만936명) 중 20대가 3029명입니다. 전체의 27.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0대가 1963명(17.95%), 40대 1448명(13.24%)입니다. 공교롭게도 제주도내 렌터카 교통사고의 절반 가량이 20대 운전자로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2017~2019년) 도내에서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총 1641건입니다. 이 기간 도내 전체 교통사고의 13%에 이르고 있습니다. 렌터카는 일반 승용차 사고에 비해 사고 정도가 훨씬 심각했다는 분석 자료도 있습니다. 사고 100건당 1.85명이 사망해 일반 승용차(0.2명)에 견줘 치사율이 무려 9배 이상 높았기 때문입니다. 속도제한 등 렌터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편집국 25시

등교 개학 이후가 더 문제



김 지 은
편집부 차장
jieun@ihalla.com

이태원클럽에서 번진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등교 개학이 다시 미뤄졌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20일부터 순차대로 등교한다지만 지금으로선 장담할 순 없다. 제2, 제3의 '이태원'이 나온다 면 집에서의 온라인 수업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그 안엔 불안이 뒤섞여 있다. 등교 개학 이후 예상되는 문제 때문이다. 그중 하나가 아이들 간의 학습 격차다. 짧은 준비 기간에도 수업 자료를 손수 만들고 실시간 수업이 나선 교사들도 그 효과를 두곤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린다. 교실에서처럼 아이들이 집중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

운 데다 상호 작용도 쉽지 않은 탓이다. 학교나 교사별로 학습 방법, 내용에도 차이가 커 아이마다 교육 기회가 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가정에서의 답답함도 크다. 맞벌이나 조손·한부모 가정 등에서 사실상 학습 지도가 어려워 애를 먹는다. 일부에선 개인 과외나 학원을 늘리고 학습 지도를 도와줄 사람을 구해 공백을 메운다는 얘기가 들리지만 그럴 형편이 되지 않는 가정에선 마음만 쓰리다. 부모 조력에 따른 차이가 우려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앞으로가 더 문제다. 한 학기의 대부분을 온라인 수업으로 대신하게 된 만큼 개학 이후 두드러질 학습 격차를 좁히는 게 시급하다. 이를 위해선 사전 대책이 필수적이지만 교육 당국의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온라인 개학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도 안고 가야 할 문제다. 코로나19처럼 예상치 못한 전염병이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어서다. 제주도의회가 최근 발의한 '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을 시작으로 공정한 학습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야 한다. 전에 없던 온라인 개학이 주는 또 다른 숙제다.

뉴스-in

행정시장 공모에 후보군 하마평 무성

오는 18일까지 5일간 공모... 제주도의 민선 7기 후반기 행정시장 공모가 지난 12일부터 본격 시작된 가운데 후보군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 도는 오는 18일까지 5일간 제주 시장과 서귀포시장에 대한 전국단위 개방형 직위를 공모하고 오는 20일쯤 도의회의 인사청문회에 이어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 일각에선 '법조인 A씨가 내정될 것으로 보인다' 'A이다. 전직공무원 B씨가 거론되고 있다' 등 양 행정시장 후보군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일부 내정설까지 나오면서 소문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 백군특기자 함덕블록공장 공익감사 청구... 제주시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반대대책위원회가 공장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 2018년 7월 사업계획이 승인된 사업에 대한 감사청구 대상은 제

주시장,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금융감독위원회, 부산지방국세청 등이 포함. 대책위는 "거짓으로 작성한 환경영향 검토서와 산업직적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문서의 위·변조 유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1차 감사처분 불이행 등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언급. 문미숙기자... 제주어보존회가 이달 19일 개강 예정이었던 제11기 제주어 기본교육 개강일을 6월 2일로 연기. 이번 개강 연기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전국 초·중·고 등교 연기와 제주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결정. 제주어보존회는 일정 변경에 따라 6월 2~10월 27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씩 총 50명을 대상으로 제주어 표기법, 제주 속담·설화·민요 등을 내용으로 제주어 기본교육을 진행할 계획. 진선희기자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한양조씨 계속(향년 97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를 위로하고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5월 14일
아들 장태준 바리 김인숙
딸 장영춘 사위 진창희
장이화 고태하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진주강씨 자화(향년 97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5월 14일
아들 임성조, 임성철, 임성준, 임성환, 임성민, 임성준
딸 임성진, 임성숙
며느리 윤기만, 김순선, 현애화
사위 최창우, 윤덕희, 김홍기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약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의료 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332-중-35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앙신협(신속)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756-2833